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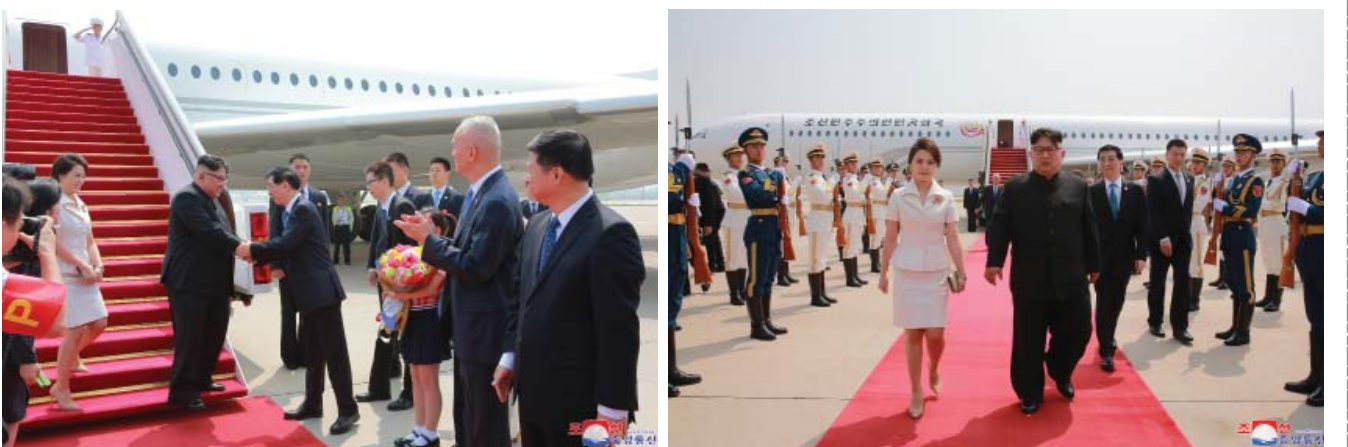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출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리설주녀사와 함께 19일 오전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를 환송하는 의식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뜨겁게 환송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환송나온 간부들과 일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신 전용기는 베이징시간으로 오전 10시 베이징수도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대의 국민으로 또다시 맞이하게 된 베이징시는 조종천선의 뜨거운 정이 감돌고있었다. 베이징수도국제비행장에는 조종 두 나라 국기들이 게양되어있었고 중국인민해방군 륙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리시자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습근평 주석과 상봉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19일 오후 5시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상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인민대회당에 도착하시자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녀사가 따듯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 주석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개월안팎의 짧은 기간에 세번째로 이루어진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력사적인 상봉은 뿌리깊은 혈연적纽대로 련결된 조중 두 나라의 형제적친선의 정을 다시금 과시하는 감동적인 화폭으로 펼쳐졌다.

습근평 주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또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는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바쁘신 시간을 내시여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 주석과 팽려원녀사와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을 환영하



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환영의식장소인 인민대회당 북대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들이 세워져있고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었다.

또한 두 나라 국기와 꽃묶음을 든 어린이 환영대렬이 줄지어 서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대청에 들어서시여 중국의 당과 정부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시며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습근평 주석이 사열대에 오르시자 우리 나라 애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연주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 주석의 안내를 받으시며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습근평 주석과 함께 어린이 환영대렬앞에 이르시자 어린이들은 두 나라 국기와 꽃묶음을 높이 흔들며 열렬히 환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어린이들에게 손을 흔드시며 따듯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원수님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사이의 회담이 6월 19일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서는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력사적인 조미수뇌상봉결과와 그에 대한 평가와 견해, 립장이 호상 통보되고 조선반도비핵화해결전망을 비

롯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관하여 유익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으며 론의된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국당과 정부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과적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지지와 훌륭한 방조를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 두 당사자의

전략적인 협동이 강화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있는 현실을 대단히 만족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보다 긴밀한 친선과 단결, 협조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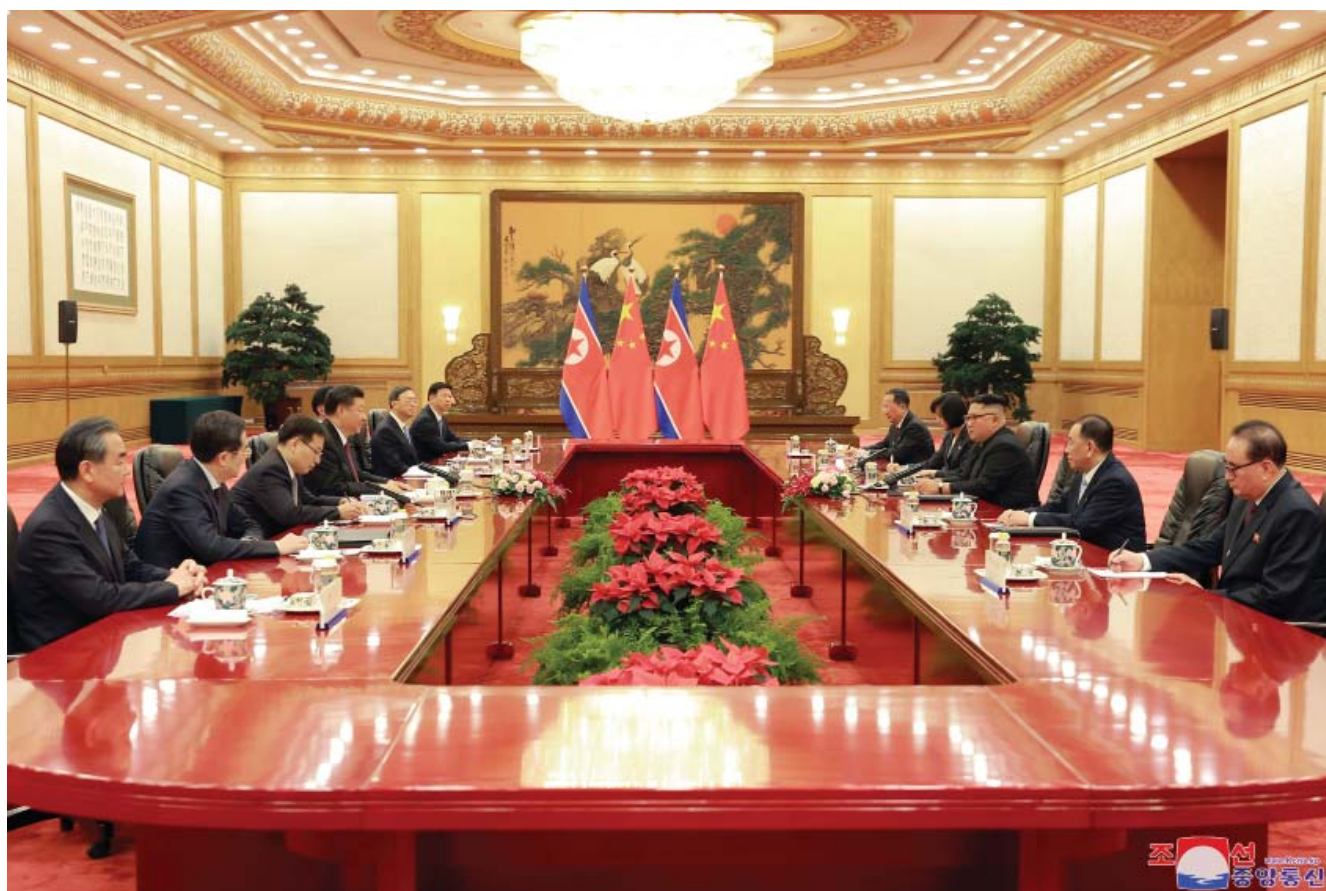
습근평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주도하시여 조선반도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 평화와 안

정의 궤도에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였다.

습근평 주석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조선측의 립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나갈것이라고 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허심탄회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습근평주석이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19일 저녁 인민대회장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인 금색대정에 나오시었다.

연회에서는 습근평주석이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었다.

습근평주석은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이는 중조 두 당사자의 전략적 사소통강화를 고도로 중시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발전시켜나가는 위인장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중조 두 당과 두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고 말하였다.

습근평주석은 중국과 조선은 친근한 벗과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참고하며 단결하고 협조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위업의 보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갈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조증이 한집안식

구처럼 고탁을 같이하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하여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습근평동지와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부단히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인 력정에서 중국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것이며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연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중국예술인들이 특별히 준비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주석, 팽려원녀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성의껏 공연을 준비한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료를 표시하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과 또 다시 상봉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습근평주석과 20일 남시터국빈관에서 또 다시 상봉하시었다.

남시터국빈관내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9년 10월 2일 친히 심으신 가문비나무가 오늘도 조중친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며 푸르청청하게 서있다.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는 이 뜻깊은 곳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를 위한 상봉의 자리를 또 다시 마련하고 특별한 환대를 베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20일 오전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와 또 다시 반갑게 상봉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존경하는 습근평주석, 팽려원녀사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며 오늘 이렇게 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한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찬에 앞서 습근평주석과 담화를 나누시었다.

조중최고령도자들의 단독담화에서는 현정세와 절박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이어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 습근평주석과 팽려원녀사께서는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 서로 마주하시고 오찬을 함께 하시었다.

여러차례의 의의깊은 상봉과 더불어 더욱 가까워

지고 친숙해진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과 녀사들께서는 시종 화기에애한 담화를 이어가시며 진정을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찬을 마치신 후 습근평주석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주석, 팽려원녀사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인사를 나누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참 관 하 시 었 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20일 오전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을 참관하시였다.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은 도시의 건물 및 시설들에서 화초와 남새를 재배하고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연구 및 보급하는 중점시범기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대농업기술종합전시센터, 잎남새재배기술연구센터, 열매남새재배기술연구센터, 도시농업연구센터, 주민지구농업응용전시센터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농업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이룩

한 성과와 경험을 진지하게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의 연구집단이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참관을 기념하여 《당신들이 이룩한 훌륭한 연구성과에 깊이 탄복합니다. 김정은, 2018. 6. 20》이라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중국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자기들이 재배한 화초들을 선물로 올리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베이징시궈도교통지휘센터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20일 오후 베이징시궈도교통지휘센터를 돌아보시였다.

베이징시궈도교통지휘센터에서는 베이징시의 지하철 도로선들과 궈도전차로선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와 지휘를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베이징시궈도교통지휘센터 주인은 중국당과 정부지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센터가 걸어온 발전로정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여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센터 주인의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시며 베이징시지하철도건설력사전시장과 지하철도사령지휘센터, 자동표판대 및 검표체계감시센터를 돌아보시면서 베이징시의 지하철도운영실태와 발전전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베이징시궈도교통지휘센터의 자동화수준이 높고 통합조종체계가 훌륭히 구축된데 대하여 경탄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센터가 앞으로 세계적인 교통지휘센터로 더욱 비약하며 더 큰 전진을 이룩하기를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 문 하 시 었 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20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지재룡을 비롯한 대사관 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사관 성원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며 대사관의 사업실태와 생활형편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사관 전체 성원들과 가족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류학하고있는 학생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국떠나 먼곳에서 너무도 뜻밖에 원수님을 만나뵈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중국주재 성원들은 감격을 금치 못하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사관 성원들과 류학생들이 건강하여 말은 사업과 학습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20일 저녁 평양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베이징수도국제비행장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왕호녕 당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채기 베이징시당위원회 서기, 송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리진군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환송하였다.

비행장에는 조종 두 나라 국기들이 게양되어있었고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해군, 공군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국의 환송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며 방문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고 이번 방문 전기간 진철하게 동행하며 온갖 성의를 다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는 친근한 중국동지들의 뜨거운 배려를 받으며 전용기로 베이징을 출발하시여 사랑하는 인민들이 기다리는 조국으로 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서 타신 전용기는 20일 저녁 7시 30분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를 맞이하는 의식이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리설주녀사를 맞이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은 조종친선의 년대기우에 또 한페지의 빛나는 장을 아로 새기시고 조국에 무사히 돌아오신 원수님께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삼가 축원의 인사를 드리면서 중국방문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마중나온 조선로동당과 정부지도간부들을 만나시고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인사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6.15의 정신으로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은 겨레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로 받아안고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4.27선언이행에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맞이하고 있다.

민족분열이후 처음으로 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새시대를 열어놓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온 일대 사변이었다.

역사의 이날을 시작으로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온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으며 6.15의 기치 밑에 걸친한 겨레의 통일운동은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전민족적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반통일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6.15는 그 정당성과 생명력, 거대한 견인력을 뚜렷이 과시하며 통일애국의 기치로 힘차게 나뉘어 마침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6.15시대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화해와 격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5.26의 거세찬 열광으로 들끓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올해에 진행된 두차례의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4.27선언의 채택을 다시 한번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해외에서 세차게 고조되는 각계각층의 통일열의를 하나로 모아 평화변영의 새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개척해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6.15공동선언과 그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것이다.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4.27선언의 채택으로 마련된 오늘날의 시대는 6.15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며 역사의 새시대에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기치는 바로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이다.

우리는 민족사의 새 출발을 선언하고 6.15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온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갈 것이다.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되고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된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것이다.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금 온 겨레는 북남사이에서 고위급회담을 비롯하여 판문점선언이행에 관한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있는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것이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북남관계가 판문점선언이 밝힌 리정표를 따라 활력있게 발전해나가도록 힘있게 추동하며 민족내부문제, 북남관계문제에 대한 어떤 간섭과 전횡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해나갈 것이다.

2. 판문점선언이행에 관한 전민족적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해나갈 것이다.

오랜 세월 분열과 대결의 상징으로 불리웠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고 화해단합과 통일의 새시대가 펼쳐진 오늘날의 현실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자

랑스러운 결실이다. 통일의 화해와 감격으로 들끓던 6.15통일시대의 올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에 펼쳐진 경이적인 특대사변들은 해외의 온 겨레가 뜻을 같이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것이며 북남사이에서 또다시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겨레의 지향과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배치되는 군사적강장을 격화시키는 온갖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첨예한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겨레의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떨쳐갈것이다.

8천만 겨레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세계가 우러르는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모두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판문점선언이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있는 북,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조직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적인 형태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발전시켜 자주통일을 위한 근본당보이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는것을 우리

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역사상 첫 조미수뇌회담이 열리고 적대관계의 종식과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의 지표가 마련됨으로써 평화실현에서 중대한 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것이며 북남사이에서 또다시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겨레의 지향과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배치되는 군사적강장을 격화시키는 온갖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첨예한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전쟁의 불안이 없는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겨레의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떨쳐갈것이다.

8천만 겨레여! 민족의 존엄과 위상이 세계가 우러르는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가 시작되었다.

우리모두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판문점선언이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있는 북,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조직으로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적인 형태를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발전시켜 자주통일을 위한 근본당보이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것이라는것을 우리

북남로동자의 단결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북남로동자단체 공동성명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맞이하는 이 시각 북과 남의 전체 로동자들은 판문점선언이 열어준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뜨거운 심장으로 맞이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6월 민족분열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민족사의 일대 사변이었다.

역사의 이날을 시작으로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삼천리강토는 화해와 단합, 통일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으며 우리 북남로동자들은 6.15의 기치 밑에 걸친한 겨레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운동을 앞장에서 힘차게 추동하여왔다.

반통일의 역풍속에서도 북남로동자들을 비롯한 온 겨레가 굳건히 지켜오고 실현해온 6.15는 마침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6.15의 감동은 오늘날 4.27의 화해와 격정으로 뜨겁게 분출하고 온 민족을 5.26의 거세찬 열광으로 들끓게 하고 있다.

북남로동자단체들은 두차례의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발표와 4.27선언의 채택을 다시 한번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새로운 역사,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와 열의로 충만되어왔다.

오늘 우리앞에는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놓여있다.

70년이 넘게 이어진 분열과 예속의 역사를 청산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사적과제가 나서고 있다.

북과 남의 로동자는 고난과 위기의 연대를 넘으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열어낸 역사적전환기앞에서 민족앞에 주어진 책무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현해나

갈것이다. 이 땅의 항구적평화와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해 로동자들이 당당히 앞장서나갈것이다.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공존과 평영을 위한 가장 선진적과제이다.

73년간 이어진 위기의 반복속에서 외세의 군사적개입과 간섭은 가중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은 세계최대의 화약고로, 언제 핵전쟁이 발발할지 알수 없는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말았다.

이제는 이 비극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1953년 7월 27일에 맺은 전쟁상태를 완전히 끝장내야 한다. 나아가 전쟁위기의 완전한 종식과 항구적평화실현을 위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공존과 평영을 실현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분렬 73년만에 열린 역사적 전환기에 북과 남의 로동자는 모든 힘을 다해 우리 민족앞에 나선 역사적과제를 해결할것이다.

정전협정폐기, 평화협정실현을 위해 북과 남의 전체 로동자가 앞장서서 나아갈것이다.

오늘 6.15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판문점선언의 민족자주원칙으로 계승되었다.

평화와 통일의 가장 절실한 당사자는 바로 우리 민족이다. 그 어떤 동맹이나 우방도 우리 민족의 이익을 방해할수 없다.

따라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가장 근본적이며 1차적인 과제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북, 남, 해외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공존, 평영, 공리의 목표아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가장 큰 애국적과제이다.

북과 남의 로동자는 철저히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민족자주의 원칙아래 모든 활동을 진행하며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는데 앞장서나갈것이다.

통일의 주인은 북, 남, 해외 8천만 민족전체이다.

북남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 4.27선언에 의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열렸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지키고 발전시켜나갈 역사적 책무가 주어졌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판문점선언의 중대한 리행이다. 북과 남의 전체 로동자는 판문점선언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견결히 맞서 싸워나가며 선언의 중대한 리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나갈것이다.

분렬 73년 역사의 결산이 시작되었다. 북과 남의 전체 로동자의 뜨거운 심장으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한국로동조합총련맹》 전국민주로동조합총련맹 2018년 6월 15일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한 장애자의 꿈이 꽃피어나기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꿈은 소중한 것이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한생을 바치기도 한다. 얼마전 기자는 남포시교리병원 의사 최성혁을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서

꿈에 대한 추억

기자가 만난 최성혁(28살)은 단정한 외모에 지성미가 엮이는 청년이었다. 남포시교리병원 수법치료과 의사인 그는 16살 나던 해부터 두눈을 못 보는 장애인이다. 실명을 두고 번민하던 그가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우리의 사선생님》으로 존경받는 교리의사가 되었다.

기자와 만난 최성혁은 《정상 사람들도 오르기 힘든 의학과학의 세계를 시력장애자가 터득했다》라고 하면 믿기 힘들것입니다. 더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주저한적도 없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기어이 유능한 의사가 되어 나의 꿈을 꽃피워준 고마운 제도와 의술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추억의 노를 저어갔다. ... 최성혁의 어릴적 꿈은 미술가가 되는것이였다고 한다. 천성적으로 시력이 나빴으나 미술에 남

유능한 고려의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배우 꼭 유능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학교 선생님을앞에서 최성혁은 이렇게 말했다.

의학에서 해부학은 유기체의 형태와 크기, 구조와 장기들의 호상위치관계, 이들의 변화발전을 연구하는 형태학의 한 분과이다. 복잡하고 치밀한 인체의 구조를 습득한다는것은 높은 관찰력과 예민한 감각을 요구한다. 그런 해부학 강의시간이면 최성혁은 안라강고 속상했다. (남들처럼 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크를 들수만 있다면.) 그런 최성혁에게 선생님과 동무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끄는 고마운 품속에서 소중한 꿈과 희망을 활짝 꽃피워온데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다른 취미를 가지고있었던 그는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즐겨 화폭에 담곤 하였다.

그런 그에게 덜컥 실명은 인생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괴로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동무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가 그린 소묘작품들을 남포시적으로 진행되는 미술경연에 출품하겠다는것이였다.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는 그의 꿈을 이루어 주어야 한다면서... 그때 최성혁은 동무들의 진실한 우정에 눈물을 흘렸다.

그후 최성혁은 그와 같은 시력장애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특별히 세워준 공장에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록 실명이 되어 미술가가 되려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손감각으로 도면마든지 가능한 수기치료사가 될 꿈을 안고 보건성산하의 어느 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들은 눈이 되고 손길이 되어주었다.

해부학시간이면 담임선생님은 그의 손을 쥐고 근육들의 위치를 맡겨주시며 팔뚝의 배설명태를 설명해주시고 최성혁은 그것을 하나하나 손터득으로 익혀나갔다. 그 나날 뜨거운 인간

애가 심장속에 짊어져야 환자의 생명을 구원해줄수 있다고 하던 스승의 말을 그는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의학의 높은 경지에 기어올라서려는 그의 탐구열의를 소중히 여겨 나라에서 그를 졸업한 그를 또다시 남포의학대학에서 공부하게 해주었다.

대학에 입학하는 그에게 교직원, 학생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대학에서 그는 수기치료와 침치료, 뜸치료와 같은 고려의학의 전문으로 배우게 되었다. 두눈을 보지 못하는 조건에서 문진으로도 얼마든지 환자치료를 진행할수 있는 고려치료방법은 그에게 적극 중추된것이였다.

이 나날 다른 학생들보다 몇배의 노력을 기울이며 공부에 열중하는 그를 두고 학교동무들은 놀라운 정열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화목하고 진정이 넘치는 인간사랑의 화원속에서 그는 학업에 더 높은 열정을 쏟아부었고 졸업후에는 실력있는 의사로 자리매김 되었다.

꿈을 꽃피운 최성혁의사. 그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는 미덕의 화환에 피어난 한말기의 아름다운 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최성혁(오른쪽으로부터 두번째)의 가정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키종함것 (21)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용어는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나 들을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세뇌비서대회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이라고 하시던 말씀.

몇해전 뜻깊은 신년사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주체의 인민관, 인민제일의 최고정화로 내세우시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역사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역사라고 말할수 있다.

건국과 첫시기 토지개혁병의 발포와 남평명동전병의 채택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의 실시, 세계제도의 완전한 폐지, 전반년11년제의무교육제의 실시를 거쳐 오늘날 전민적12년제의무교육제 실현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다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인민적법령이고 시책이다.

공화국에서는 정치의 중심에 언제나 인민이 자리잡고있다. 로선과 정책을 세우도 인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고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찬동을 받고있다.

이런 정치하에서 공화국은 참다운 인권이 보장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로,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

는 사회인 공화국에서는 물질적부의 창조자도 인민이며 그 향유자 또한 인민대중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나라의 인민들이 헤어나올길 없는 불행과 고통속에 허덕이고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은커녕 현재의 삶에 대한 비애와 타락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격정과 불만의 그늘속에 묻혀 살고있다. 국가가 인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 찾아 다른 나라, 다른 대륙으로 피난을 가는것도 21세기의 현실이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인민의 복락을 가꾸어가는 령도자가 계시여 흐르는 날과 밤, 해가 그대로 인민의 기쁨, 행복의 노래가 되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나 다 찾아가신다. 공장과 농촌, 어촌, 과학연구기관 건설장, 학교와 유치원, 육아원과 예육원, 양로원에 이르기까지 마른날 곳은날, 낮과 밤이 따로없이 끊임없는 현직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군중시위연단에서 하신 그의 연설은 세인이 놀라움속에 평한바와 같이 《인민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나는 인민을 위한 연설》이였다. 한 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두고 《25분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인민)을 97번이나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역사의 돌풍속에서 믿은것은



오직 인민뿐이었고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마다, 준엄한 난곡에서 부닥칠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으며 인민의 진정에서 힘을 얻곤 하였다고 하신 인민사랑의 고백에 만민이 감동하였다.

인민이 바라만하던 하늘의 별이 아니라 따사로운 인민을 위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운명을 지키고 보살피주며 꽃피워주고 미래까지 담보해주는 은인처럼 고마운분이 없었다.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운명이고 미래의 기쁨으로 모시고 산다. 령도자는 인민을 위해 헌신하고 인민은 령도자와 사랑과 뜻을 같이하는 혈연의 관계, 이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인간중심의 위대한 사상을 구현한 사회,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는 공화국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성스러운 역사를 수놓아 나가는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이다.

김금화

누구나 좋아하는 새형의 무궤도전차

요즘 평양시안의 여러 무궤도전차로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이 달리고있다.

그 무궤도전차가 바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만든 《천리마 316》형 무궤도전차이다.

세련미가 나게 색조화한 전차의 겉모습도 그러하지만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요구를 구현한 우리 식의 무궤도전차여서 더욱 좋다.

우선 계단이 그리 높지 않아 인민들이 좋아하고있다.

차안에는 선공기와 온풍기가 설치되어있고 의자도 포근한 색깔로 편리하게 제작되었다.

차의 내부와 외부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혀주는 안내전광판도 새롭게 설치되었다.

2중전원체계를 도입한 새형의 무궤도전차는 예상치 않은 정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운행할수 있게 되어있으며 조종특성이 좋은 전동기를 새로 제작, 설치하여 이전 시기의 무궤도전차들보다 견인력을 1.2배로 높였다.

무궤도전차는 진동과 소음이 적고 속도도 좋다.

중구역 외성동에서 살고 있는 박성출(72살)로인은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하시

여 이런 훌륭한 무궤도전차를 새로 안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걱정을 토로하였다.

역전동에 산다는 장옥란(45살)녀성도 《산뜻하고 깔끔한 새 무궤도전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하니 마음이 참으로 상쾌하고 즐겁다.》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를 발휘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천리마 316》형 무궤도전차는 평양의 면모를 한껏 돋구어주며 시민들의 편의를 적극 도모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평양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련광장과 대동문사이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금속공예유산인 평양종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평양종의 유래는 려오래다.

1714년 평양의 복성을 쌓고 북장대를 세우게 되면서

대동문 윗쪽다락에 이미 달려있던 종을 옮겨달았다는 자료가 있다.

지금의 평양종은 1726년 6월 9일부터 걸쳐 부벽루 서쪽뜰에서 주조완성하였다.

종의 무게는 12t 914kg이고 높이는 3.1m이며 아구리 직경은 1.6m이다.

종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문명 등이 조각되어있다.

절교리는 쌍룡틀임으로 하였는데 통머리의 형상이 생겼었다.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손꼽히던 큰 종들중의 하나로서 모양이 아름답고 소리가 또한 장중하여 일찍부터 《평양의 명물》로 일러왔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가족 사진 (3)

글 김승기, 그림 리성일

영만은 여기 광천리의 리당위원장을 잘 안다. 아니, 면식이 있어 아는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기가 있어 그를 열골로 알고있다.

몇해전 평양에서 전국군미공영성자대회가 열렸었다. 그때 이곳 광천리에서도 2명의 원군미공영성자들이 그 대회에 참가하였었는데 그중 한명은 토론까지 하였다. 그 토론내용이 다른 토론들과는 특이한데가 있었다.

그는 대회의 연단에서 자기 어떻게 많은 패지를 길러 인민군대에 원호하였는가를 토론하였다. 그러나 모든 성과들은 모두 리당위원장이 든든한 고인물이 되어 자기를 도와주었기때문에 이루어진것이라고 열정에 넘쳐 토론하였다. 자기가 어떻게 인민의 지향을 품게 되었으며 또 힘들어 주저앉았을 때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리당위원장이 어떻게 도와주었는가를 보여주는 그 토론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훌륭한 원군미공영성자의 뒤에는 또 그렇듯 좋은 당일군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감동적인 일화의 주인공이 지금 이 집에 와있다... 사실 이 집 잔치가 시대의 미풍과는 어울리지 않는 잔치라는것을 느끼고있는 영만으로서의 차마 리당위원장까지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다.

원군미공영성자대회 이후 광천리 리당위원장의 사진을 찍어 군속보판에 그의 사업 성과를 알리는 속보와 함께 내보냈던 영만은 너무도 뜻밖의 사실앞에 어안이 병병하여 멍히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 놀라움은 잠시후에 더 큰 놀라움으로 변하였다.

순박한 농민의 모습인듯한 리, 코, 입이 다 두툼하게 생긴 리당위원장은 역시 농민답게 두박하게 생긴 손으로 그 집 어머니에게 찰랑찰랑 술을 부었다. 그리고는 한쪽 무릎을 단정히 꿇고앉아 그 술을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6.15시대도 멀쳐져 통일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제 그날이 오면 자식들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비록 동네사람들이 모여 어머니에게 상을 차려드렸지만 그때엔 어머니의 친 자식들이 상을 더 크게 차려 어머니를 축하해줄것입니다. 그러니 통일의 그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영만의 가슴에는 놀라운 의문의 파동이 일었다.

그러니 이 80살생일상은 자식들이 아니라 동네사람들이 차려준것이란 말인가? 그러면 저 김명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만은 급히 사람들속에 끼여 서있는 김명후의 얼굴을 망막에 담아보았다. 그리고보니 김명후의 얼굴모습은 어머니의 얼굴생김새와는 너무도 판관 달랐다. 김명후의 눈은 눈썹이 이렇게 굵은 것은 대신 어머니의 눈은 잔조롭힌 편이었다. 코도 김명후의 코날이 우뚝한 형이라면 어머니의 코는 마루가 심하지 않은 얇은 코였다.

그러니 김명후도 역시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김명후가 저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게 되었는지. 그에 대하여 얼마후 잔치를 주관하는 중로배가 알려주었다.

《명후는 이 어머니와 전혀 닮지도 못하는 사람이였지요. 군대에서 제대되어 작년에 우리 마을에 온 젊은 이니까요. 그런데 그가 우리 마을에 와보니 자식도 없이 홀로 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디. 박차옥어머니였지요.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고 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남녘에서 들어온 어

대성산기슭에 넘치는 희열과 광만

무더운 여름철인 요즘 풍치수려한 대성산기슭으로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발길이 끊길줄 모른다.

외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쌓은 큰 성이 있는 산이라 하여 대성산이라 불리우는 이곳에는 소나무가 많은데 여기에 참나무며 기름나무, 산과일나무, 수삼나무, 참오동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과 꽃식물들이 섞여 특음이 우겨져있다.

술이 무성하니 꿩이며 밀화부리, 꿩꼬리, 딱따구리와 같은 새들과 노루, 산토끼 등 동물들이 저마끔 보금자리를 쾇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었다.

대성산에는 려사유적들도 많은데 3~5세기에 쌓았다는 대성산성을 비롯하여 20여개나 되는 성문터와 못자리, 물주머니, 산성기슭의 안학궁터와 옛무덤들 그리고 장수봉의 정각, 남문, 광범사 등이 옛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려사와 문화를 잘 알수 있게 해준다.

이뿐만 아니다. 갖가지 유희시설들을 갖춘 대성산유희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훌륭한 문화휴식터이기도 하다.

거대한 풍차를 방불케 하는 대관람차에 몸을 실으면 대성산의 아름다운 모습

이 한눈에 굽어보이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케도를 따라 질주하는 관성렬차와 판성단차를 타면 지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런가 하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듯 한 느낌을 자아내는 회전비행기와 좁은 구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유희시설들에서는 사람들의 즐거움 웃음소리가 끊길줄 모른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한참 웃고 떠들다 남문식당이며 소문봉식당, 차집과 같은 봉사망들에서 식사를 한 다음 동천호와 미천호에서 배놀이하는 재미 또한 이례했다.

대성산을 찾은 사람들이 발길이 가장 되는 곳에는 중앙동물원도 있다.

넓은 부지에 동물보호구역식의 자연동물원과 수습계의 동물사, 동물재주장, 수의병원, 여러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춘 중앙동물원은 온갖 동물들과 물고기, 새들에게는 락원이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동물자원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훌륭한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라고 할수 있다.

관람에 편리하면서도 동물들의 생태환경에 어울리게 꾸러진 자연박물관과 꼬끼리사, 침팬지사를 비롯한 동물사들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늘 흥성인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대륙의 바다와 강, 호수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류와 거북기류, 바다짐승류들을 볼수 있는 수족관은 마치 바다생태계를 통째로 옮겨놓은것만 같다.

곰과 원숭이놀이장, 에완 용개들의 재주겨루기가 펼쳐

지는 동물재주장은 또 그것대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곳이다.

대성산기슭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진귀한 식물들이 보존관리되고있는 중앙식물원도 있다.

규모에 있어서 세계적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중앙식물원에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비롯하여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세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

해외동포들이 올린 수천여종의 선물식물들과 수만여종의 우리 나라 식물들이 있다.

그 식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식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된다.

이렇듯 경치가 아름답고 려사유적 또한 많은데다 유화정이며 동물원, 식물원까지 자리잡고있는 대성산은 인민들이 즐겨찾는 평양의 명소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박철남



누구나 즐겨찾는 중앙동물원

많은데 3~5세기에 쌓았다는 대성산성을 비롯하여 20여개나 되는 성문터와 못자리, 물주머니, 산성기슭의 안학궁터와 옛무덤들 그리고 장수봉의 정각, 남문, 광범사 등이 옛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어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려사와 문화를 잘 알수 있게 해준다.

이뿐만 아니다. 갖가지 유희시설들을 갖춘 대성산유희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훌륭한 문화휴식터이기도 하다.

거대한 풍차를 방불케 하는 대관람차에 몸을 실으면 대성산의 아름다운 모습

이 한눈에 굽어보이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케도를 따라 질주하는 관성렬차와 판성단차를 타면 지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런가 하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듯 한 느낌을 자아내는 회전비행기와 좁은 구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유희시설들에서는 사람들의 즐거움 웃음소리가 끊길줄 모른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한참 웃고 떠들다 남문식당이며 소문봉식당, 차집과 같은 봉사망들에서 식사를 한 다음 동천호와 미천호에서 배놀이하는 재미 또한 이례했다.

대성산을 찾은 사람들이 발길이 가장 되는 곳에는 중앙동물원도 있다.

넓은 부지에 동물보호구역식의 자연동물원과 수습계의 동물사, 동물재주장, 수의병원, 여러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춘 중앙동물원은 온갖 동물들과 물고기, 새들에게는 락원이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동물자원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훌륭한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라고 할수 있다.

원로리란 지명은 예로부터 물이 좋아 이 마을에 장수자가 많다는데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런데 천연기념물도 돌출된 평안남도 평성시 화포리에 있는 화포곰샘물도 건

이번에 천연기념물도 돌출된 평안남도 평성시 화포리에 있는 화포곰샘물도 건

강장수와 치료에 적극 리용되고있는 희귀한 장수샘물이다.

약간의 금, 은, 셀렌 등이 들어있는 이 샘물은 회

합도가 8인 천연소분자물이다.

국내의 황천나무들중에서 크고 오래 자란 금야황천나무도 천연기념물도 등록되었다.

이 나무의 높이는 38m, 나무갓너비는 동서방향으로 26m, 남북방향으로 26.5m 나 된다.

본사기자

직경은 1.6m이다.

종에는 불상, 사천왕상, 구름무늬, 문명 등이 조각되어있다.

절교리는 쌍룡틀임으로 하였는데 통머리의 형상이 생겼었다.

평양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손꼽히던 큰 종들중의 하나로서 모양이 아름답고 소리가 또한 장중하여 일찍부터 《평양의 명물》로 일러왔다.

이 한눈에 굽어보이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케도를 따라 질주하는 관성렬차와 판성단차를 타면 지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런가 하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듯 한 느낌을 자아내는 회전비행기와 좁은 구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유희시설들에서는 사람들의 즐거움 웃음소리가 끊길줄 모른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한참 웃고 떠들다 남문식당이며 소문봉식당, 차집과 같은 봉사망들에서 식사를 한 다음 동천호와 미천호에서 배놀이하는 재미 또한 이례했다.

대성산을 찾은 사람들이 발길이 가장 되는 곳에는 중앙동물원도 있다.

넓은 부지에 동물보호구역식의 자연동물원과 수습계의 동물사, 동물재주장, 수의병원, 여러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춘 중앙동물원은 온갖 동물들과 물고기, 새들에게는 락원이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동물자원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훌륭한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라고 할수 있다.

천연기념물들을 새로 등록

강장수와 치료에 적극 리용되고있는 희귀한 장수샘물이다.

약간의 금, 은, 셀렌 등이 들어있는 이 샘물은 회

이 한눈에 굽어보이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케도를 따라 질주하는 관성렬차와 판성단차를 타면 지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런가 하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듯 한 느낌을 자아내는 회전비행기와 좁은 구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유희시설들에서는 사람들의 즐거움 웃음소리가 끊길줄 모른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한참 웃고 떠들다 남문식당이며 소문봉식당, 차집과 같은 봉사망들에서 식사를 한 다음 동천호와 미천호에서 배놀이하는 재미 또한 이례했다.

대성산을 찾은 사람들이 발길이 가장 되는 곳에는 중앙동물원도 있다.

넓은 부지에 동물보호구역식의 자연동물원과 수습계의 동물사, 동물재주장, 수의병원, 여러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춘 중앙동물원은 온갖 동물들과 물고기, 새들에게는 락원이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동물자원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훌륭한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라고 할수 있다.

이 한눈에 굽어보이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케도를 따라 질주하는 관성렬차와 판성단차를 타면 지도 모르게 《아—》 하는 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런가 하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오르듯 한 느낌을 자아내는 회전비행기와 좁은 구역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유희시설들에서는 사람들의 즐거움 웃음소리가 끊길줄 모른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한참 웃고 떠들다 남문식당이며 소문봉식당, 차집과 같은 봉사망들에서 식사를 한 다음 동천호와 미천호에서 배놀이하는 재미 또한 이례했다.

대성산을 찾은 사람들이 발길이 가장 되는 곳에는 중앙동물원도 있다.

넓은 부지에 동물보호구역식의 자연동물원과 수습계의 동물사, 동물재주장, 수의병원, 여러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춘 중앙동물원은 온갖 동물들과 물고기, 새들에게는 락원이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동물자원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훌륭한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라고 할수 있다.

썩의 약효와 썩떡 만드는 방법

썩은 예로부터 건강에 좋은 약재로 널리 알려져있다.

썩은 맛이 쓰고 향긋하며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썩은 몸을 덥게 해주므로 속이 차서 설사가 잦을 때, 몸이 차면서 잘 부을 때, 아래배가 차지면서 오줌이 잘 나가지 않을 때, 손발 또는 허리가 차지면서 자주 저리거나 아를 때 효과가 있다.

썩은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때문에 입맛을 돋우며 소화와 살피도록 하고 배아픔, 계우기 및 설사를 다스린다. 이밖에 장기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피를 맑게 한

다. 썩은 피부건조증, 호흡기질환, 여러가지 알레르기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썩떡을 만드는데는 흰쌀가루, 밀가루, 강냉이가루 등 여러가지 낱알가루를 쓴다. 흰쌀가루를 가지고 썩떡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그릇분의 음식감으로 약 쌀 153g, 썩 한줌정도,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을 준비한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썩을 끓는 물에 데쳐 찬물에 담그어 우린다. 흰쌀은 가루를 내어 끓는 소금물로 익반죽

하고 떡반대기를 빻어 센 김에서 쪄낸다.

떡이 충분히 익으면 꺼낸 다음 여기에 준비한 썩을 넣어 풀기가 나게 치대겨 둬글 납작하게 빻어 참기름을 바른다. 썩으로는 꼬리떡, 색절편을 비롯한 여러가지 절편뿐 아니라 송편, 개피떡도 만든다.

썩떡은 향기롭고 색깔이 고울뿐아니

라 쫄깃쫄깃하고 맛이 좋으며 빨리 씹거나 굳어지지 않는다.

햇썩을 살짝 데쳐 절구에 찧은 다음 포장해서 랭장고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썩떡을 해먹을수 있다.

본사기자



썩절편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는 어머니이기에, 남녘에서 혈혈단신으로 들어와 이 제 통일이 되면 친자식들을 만나야 할 어머니이기에 그렇듯 사진을 찍어드려도 정말 찍어드리고 이렇게 상을 차려도 더 잘 차려드리고싶은것이 저 김명후나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마음이었구나!

영만은 이런 사람들을 순간이나마 이해하고있는 자기 가 부끄러워했다.

이렇듯 훌륭한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있었다니...

방금전에 그닥 성의를 받

들이 결코 달리될수 없지.)

영만은 잔치상을 통째로 들고 사회주의건설장에 지원가던 사람들속에, 남의 자식을 데려다 자기 자식처럼 결혼상을 차려주던 훌륭한 사람들속에 김명후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영만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찍으면 사진을 좀더 멋있게 찍어줄수 있을까?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군상이 있었다.

그렇다. 그렇게 찍으면 멋진 사진이 될수 있지.

영만은 리당위원장이 사진을 찍고 물러나자 좌측을 향해 소리치듯 말하였다.

한껏 억양있게 어조였다.

《여러분! 모두 사진기앞에 들어서십시오. 마을사람들모두가...》

사람이 너무 많아 렌즈로 다 포착하기 어려웠으나 영만은 사람들 틈사이를 조이고 사진기의 촬영거리를 최대한으로 늘려 애써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 사진기에 담았다.

사람을 누르는 영만의 마음이 흥분으로 떨렸다. 그러면서 그는 입속으로 뇌이였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사진이지! 아무렴,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진짜 가족사진이야!》

후에 그는 이 사진을 자기의 사진사생애에서 가장 멋진 사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하였다.

(끝)

건강장수는 칼시움보충으로부터

의과학기술이 날을 따라 발전함에 따라 인체에서의 칼시움의 놀라운 생리작용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으며 칼시움을 많이 섭취하는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사람은 하루에 대소변과 땀을 통해서 보통 300mg의 칼시움을 배출하는데에 부족되는 칼시움을 채우지 못하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사람이 부족되는 칼시움을 보충하지 못하면 몸안의 뼈를 녹여 혈액에서의 칼시움 농도를 높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뼈는 점차 성골어져 골공소중에 걸리게 되며 여러가지 합병증도 생기게 된다.

만약 방잡상성의 기능부족

으로 혈액속에 칼시움이 제대로 보충되지 못하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병에도 걸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칼시움섭취가 부족하면 태아와 어린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심한 지장을 주는것은 물론 성인들속에서는 염중성질병, 소화기질병, 피부병, 출혈, 뇌성질병, 중앙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며 사람의 체질이 산성화되면서 노화를 더욱 촉진하게 된다.

이로부터 현대의학은 칼시움 인강생명의 제일 중요한 원소인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며 음식이나 칼시움보충제를 통해서 칼시움을 충분히 섭취하는것이 건강과 장수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하고있다.

본사기자

유모아 약이 있으니 일없어

아들이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해서 말하였다.

《아버지, 돼지내포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때문에 더 자주드시면 안돼요!》

《괜찮아. 동맥경화에 좋은 약이 있으니가.》

《아버지, 몸이 자주 나는데 비계를 그만 잡주세요.》

《일없어. 몸까는데 좋은 약이 있으니가.》

《아버지는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다가는...》

《넌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신경을 둔구면서... 그때, 내가 요즘 혈압이 높아진걸 모르느냐?》

《괜찮아요! 아버지, 혈압하강제가 있지 않아요!》



《사진사동지, 저의 어머니는 사진을 찍어드려도 그저 평범히 찍어드리고싶은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였구나.

휘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사진을 찍어주던 일이 후회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의 온갖 정력을 기울여 더 훌륭하게 사진을 찍어주어야 할것이였다.

(아무렴, 우리 시대의 사람